

검은 물 밑에서

그 할머니는 각서를 썼다고 했다
죽어도 괜찮다고 각서를 썼다고 했다
가족들도 괜찮다고 각서를 썼다고 했다
그래야 아파트 청소부로 취직할 수 있었다고 했다

뜨겁던 하늘에서 돌연, 비가 많이 내린 날에
언덕에는 폭포가 생기고
검은 강이 아스팔트를 덮었다
강남 땅에 유난히도 많이 다니던 자동차들은
흙탕물 속에 둥둥
연못의 개구리 마냥 떠다녔다

높은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들은 피난을 가고
아파트에는 이제 경비 보는 사람들이랑 청소하는 사람들이랑
그 사람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이랑
그렇게만 남았다고 한다

어느 날 그 할머니는
시커멓게 물에 잠긴 지하를 청소하러 내려갔다고 한다
물은 그득하고 사람도 없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른다고 한다
몰라서 모르는 건지 알아서 모르는 건지도 모른다고 한다
어쨌든 모른다고 한다
검은 물 밑을 청소하던 할머니는
그대로 검은 물 밑에 가라앉았다고 한다

땅 위에는 자동차가 둥둥
땅 밑에는 빗자루가 둥둥
그렇게 검은 물이 세상을 나누고 있었다고 한다

물이 걷히고 햇볕이 오르고
그제서야 자기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검은 물 밑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한다
무언가가 무어인지는
몰라서 모르는 건지 알아서 모르는 건지 몰라도
어쨌든 몰랐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검은 물 밑에 그냥 두자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어느 날 다른 청소부를 불러다가
물도, 물 속의 모든 것도 쓸어내다 버렸다고 한다

그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어쨌든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